

함께 흘린 땀과 함께 나눈 시간으로 기억될 나의 프랑스 체류기

국제워크캠프 프로그램 참가 후기

김태원 신문방송학과 4학년

국제워크캠프(International Workcamp)는 올해 우리대학 국제교류팀이 진행한 해외교류 프로그램 가운데, 학생들의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프로그램이다. 지난 여름, 세계 각지에서 모인 청년들은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함께 생활하며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국적도, 인종도, 문화도 다르지만 봉사를 통해 글로벌 프렌드십을 다지고 온 우리대학 김태원 학생에게도 이번 캠프의 기억은 오래도록 기억될 최고의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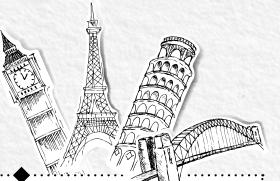


캠프 합류 전, 나만의 유럽여행에 도전하다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국제워크캠프에 참여했다. 선발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국가를 3개까지 쓸 수 있었는데, 나는 1지망 프랑스, 2지망 독일, 3지망 이탈리아로 모두 유럽 국가를 지원했다. 봉사를 마치고 가급적 많은 나라를 여행하고 싶었기 때문에 국가 간 이동이 용이한 유럽을 선택한 것이었다. 운 좋게 원하는 프랑스로 떠나게 되었고, 직접 항공권과 교통편을 조사하며 다가올 그날을 준비했다.

무엇보다 신경을 썼던 건 워크캠프에서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의 문화를 어떻게 보여 줄 것인가였다. 고심 끝에 선택한 방법은 우리의 음식과 게임이었다. 불고기 재료들과 김 등을 챙기며 나의 기대와 설렘은 더더욱 커졌다. 또, 워크캠프 전후로 계획한 개인적인 여행일정을 짜는 일이었다. 흔치 않은 기회이기에 유명 포털 카페나 블로그 등을 검색하며 나에게 꼭 맞는 루트를 하나씩 완성해나갔다.

대망의 출국일! 7월 14일에 출국해 8월 25일 귀국하기까지, 파란만장한 나의 여름이 시작되고 있었다. 캠프 장소로 이동하기에 앞서 2주 동안 러시아 모스크바, 벨기에 브뤼셀, 독일 프랑크푸르트, 헝가리 부다페스트, 오스트리아 빈, 이탈리아 피렌체, 피사, 로마 등을 여행했다. 동행도 없이 오로지 혼자 해외여행을 다녀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도 커지만 막상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다 보니 모든 일정은 수월하게 진행 됐다. 각 나라의 대표음식과 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었고, 평소 미술사 분야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이탈리아의 유명 미술관에서 수많은 명화들을 직접 대면하니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웠다.



국제워크캠프(International Workcamp) 프로그램

지원자격 기초적인 영어회화가 가능하고, 총 평균 평점 2.6 이상인 본교 재학생

교육내용 유럽 국가의 지역 호스트 단체에 의해 2~3주 단위로 기획되는 프로젝트에서 인증, 사상, 국적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자원봉사와 문화교류 체험

기간 여름방학 중 2~3주

학점인정 수료증으로 본교 고교 3학점 인정

장학지원 연수 수료 후 프로그램 참가비 50만 원 지원

언어를 넘어 열린 마음으로 캠프의 일원이 되다

그렇게 커다란 감동을 안고 캠프 현장으로 향했다. 내가 도착한 곳은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Antichan-de-Frontignes'라는 작은 마을이었다. 세계 곳곳에 설치된 워크캠프장은 저마다의 환경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굉장히 양호한 편에 속했다. 샤크실과 화장실이 비치된 일종의 텐트촌이었다. 다행히 식사는 요리사가 있어 끼니 때마다 맛있는 음식들을 제공해 주셨다. 캠프 기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한 친구들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세르비아에서 온 밀리차, 터키에서 온 아헨과 쎔, 우리 캠프단의 리더인 프랑스 출신의 빅토리아, 에스토니아에서 온 아트, 스페인에서 온 미겔과 마리나, 독일에서 온 지나, 그리고 또 다른 한국인 승호가 있었다. 그들과 친해지는 과정에서 가장 걱정스러웠던 것은 역시 '언어'였다. 유럽국가들은 각기 다른 자국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캠프 내에서는 자국어는 엄격히 금지되고 오직 영어만 사용할 수 있다.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탓에 대부분 비슷한 걱정을 하는 게 사실이지만 사실 워크캠프 내에서 요구되는 능력은 능숙한 영어 실력이 아니라 그들과 대화하려는 진심 어린 노력, 그리고 열린 마음이었다. 워크캠프의 종류는 환경미화, 아동, 장애우, 교육, 축제, 건설 등 매우 다양한데, 우리는 주로 마을의 축제를 위한 사전 준비 즉, 환경미화나 축제장 건설 등의 일을 했다. 주로, 평일 오전에는 일을 하고 오후부터는 수영이나 운동 등 캠프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활동들을 병행했다.



01~05 캠프 합류 전 나흘로 떠난 유럽여행에서 만난 풍경들- 러시아 모스크바, 벨기에 브뤼셀, 헝가리 부다페스트, 이탈리아 피사, 오스트리아 빈 06 국제워크캠프에서 만난 세계 각국의 친구들과 함께 07 Antichan-de-Frontignes 마을의 멋진 구름 08 마을 사람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한국음식, 불고기 09 마을 축제장 건설을 돋는 워크캠프 작업 현장

봉사활동과 문화교류가 공존하는 국제워크캠프의 매력

워크캠프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는다면 첫째, 매일매일 정말 엄청난 하늘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머물던 마을은 구름이 겹치는 지점이라 가장 멋진 구름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었다. 흐린 날이면 우리는 구름 안에서 생활해야 했고, 맑은 날 밤엔 무수히 많은 별들이 둥글게 마을 주변을 감싸는 가운데, 별을 보며 잠이 들었다. 모두 우리나라에선 볼 수 없는 풍경들이었다. 두 번째는 캠프 친구들에게 전파한 한국문화 체험의 시간이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술자리에서 즐겨 하는 게임 몇 가지와 우리의 전통놀이 라 할 수 있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가르쳐줬는데, 다들 어찌나 즐거워하던지 괜히 뿌듯했다.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각 나라의 음식을 만들어 대접한 기억을 꼽고 싶다. 우리나라 대표 음식으로 불고기 요리를 준비한 나는 현지인들의 폭발적인 반응 덕에 또 한번 뿌듯한 경험을 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3주간의 프랑스 생활을 돌아보니 기억에 남는 것들이 참 많았다. 하루 종일 일에 바쁘고, 예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 프랑스인들은 오후가 되면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기고, 자유롭게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즐기는데 익숙했다. 캠프 친구들과 작별을 한 뒤 마지막으로 파리를 여행하는 것까지, 계획했던 모든 일정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계 곳곳의 친구들을 알게 되고, 해외봉사라는 소중한 경험을 얻었으며, 단순히 여행만으로는 알기 힘들었을 프랑스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차마 글로는 모두 담아내기 어려운 그때의 무수한 감동과 감정들을 더 많은 이들이 경험해보길 권하고 싶다. ①